



즉시 배포용: 2022년 9월 9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주 새로운 국적자를 위한 최초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 시작

이주자 지원국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생기 넘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

Hochul 주지사는 환영 주간을 선포하고 뉴욕주의 새로운 이주자의 중요한 기여 강조

선포문은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9월 9일부터 18일까지 환영 주간(Welcoming Week)의 일환으로 뉴욕주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New York State Civic Leadership Program)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ew York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과 이민자 포용 프로그램의 선도적 단체인 웰커밍 아메리카(Welcoming America)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됩니다.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주정부 주도로 뉴욕주의 신규 이주자들의 시빅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최초의 프로그램으로 지방 정부, 기관, 이웃을 연결합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은 리더십 수립 및 시민 훈련 워크숍 세션을 제공하여 새로운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 세대의 이민자들이 땀과 노력으로 건설한 곳이며, 우리는 뉴욕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뉴욕주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최초로 새로운 이주자들이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주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번영하는 뉴욕주 건설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의 지역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2022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뉴욕주의 환영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환영 주간 동안 단체와 지역사회는 모든 배경을 가진 이웃들을 한 곳에 모아 이들이 환영받고 동화될 수 있는 곳에서 유대를 쌓고 공동의 번영과 유대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환영 주간은 굳건한 시민 활동 및 지역사회 동화를 위해 지역 지도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해 온 비영리 단체인 웰커밍 아메리카가 주도합니다.

Robert J. Rodriguez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는 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출범

초기부터 이주자 지원국은 이민자들의 성공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주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주자들이 정부와 기타 기관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목소리를 내며 가용한 자원에 대해 인지하여 지역사회에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의 노력입니다. 새로운 이주자들인 뉴욕에서 함께 어울려살며 이곳을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길을 제공합니다."

Catalina Cruz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행정부가 추진하고 이민자 지원국이 시행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는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정치가 더욱 다양해질 수 있는 새로운 이민자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노력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시빅 리더십을 키우는 것은 이주자 통합에 필수적입니다. 뉴욕주 시민 리더십 프로그램은 뉴욕이 전국적으로 민주적 전통과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지역사회 조성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뉴욕을 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신 Hochul 주지사과 Rodriguez 주무장관께 감사드립니다."

Rachel Peri 웰커밍 아메리카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커밍 아메리카는 뉴욕주와 함께 협력하여 뉴욕 주민이 배경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적이고 혁신적인 투자를 해주신 뉴욕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뉴욕 주민이 배경이나 출신지에 관계 없이 지역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박수를 보냅니다."

Joan Odess 라이프웍스 이민자 서비스(LifeWorks Immigrant Services)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이프웍스 커뮤니티 액션(LifeWorks Community Action)은 웰커밍 아메리카와 함께 파일럿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의 이민자 서비스 프로그램(Immigrant Services Program)은 지역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 의료, 법률,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접근성을 확보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지역의 비공식적인 지도자지만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리더십을 강화할 훈련을 받지 못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이 크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이민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시민 리더십 자질을 발전시키고 이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이러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Jacqueline Fan 중국계 미국인 계획 위원회(Chinese-American Planning Council) 프로그램 퀸즈 특별 수요 관리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계획 위원회는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 및 웰커밍 아메리카와 협력하여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퀸즈 커뮤니티 서비스(Queens Community Services) 시설에서 이주자들의 시빅 리더십 기술을 강화하는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특별한 수요가 있는 가정을 비롯해 중국계 이민자 가정에 더욱 많은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들이 뉴욕에서 시민 활동에 참여하여 특히 주민의 절반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퀸즈 지역의 주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Maggie M. Evans 애그리-비즈니스 아동 개발(Agri-Business Child Development, **ABCD**)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ABCD 가족에게 교육 기회, 사회, 웰빙,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기쁩니다. 파트너십은 ABCD의 성공과 전략적 계획의 핵심 부분입니다. 환영 주간을 맞아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의 운영 시작을 축하드리며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과 웰커밍 아메리카, 그리고 ABCD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이러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이민자 및 난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더욱 이주자를 환영하는 포용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지역사회에서 이웃 및 기관과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것은 모두 새로운 이주자들이 번영하고 동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은 웰커밍 아메리카와 협력하여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에 맞는 워크숍 커리큘럼을 개발할 것입니다. 웰커밍 아메리카는 새로운 시빅 리더십 커리큘럼을 활용할 세 곳의 뉴욕주 지역사회 기반 단체에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웰커밍 아메리카의 커리큘럼 개발은 뉴욕주 사회의 수요를 반영하여 주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이민자 포용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포함합니다.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진행하게 될 세 곳의 지역사회 기반 단체는 중국계 미국인 계획 위원회, 애그리-비즈니스 아동 개발, 라이프웍스 등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교외 및 도시 지역 모두에서 뉴욕주 세 곳의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기관은 뉴욕시, 오렌지, 사라토가 카운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참가자를 모집하고 이번 가을 말 사용할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사용할 워크숍 세션을 추진합니다.

참여를 위한 특별 자원봉사가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 이민자 부모 및 돌봄 노동자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ONA만의 라미레즈 준 이니셔티브(Ramirez June Initiative)에 기여합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의 이니셔티브로 주정부 수준에서 역량을 쌓아 지적 및 발달장애(I/DD)를 가진 이주자와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뉴욕주의 중요한 자원, 정보,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시빅 리더십 프로그램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이민자의 목소리를 지원하고 시빅 리더십과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이민자의 시민 및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ONA 다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ONA)은 2012년에 설립되었으며 미국 최초로 법률로 규정되어 설립된 이민자 지원 사무국입니다. ONA는 모든 이주자들이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무료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하고 검색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거나 ONA 의 프로그램과 연결하기를 원하는 이민자들은 이주자 핫라인(New Americans Hotline)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 시에서 오후 8 시 사이에 1-800-566-7636 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 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https://dos.ny.gov/office-new-americans> 를 방문하거나 트위터 @NYSNewAmericans 또는 페이스북에서 ONA 를 팔로우하십시오
<https://www.facebook.com/NYSNewAmericans>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